

7/16/17

설교 제목: 약속을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인 믿음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히브리서 11:8-22

- (히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 (히 11: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 (히 11: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절관주** 계 21:14
- (히 11: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 (히 11:12)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절관주** 롬 4:19
- (히 11: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절관주** 요 8:56
- (히 11: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절관주** 고후 4:18, 빌 1:23
- (히 11:15)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절관주** 창 11:31
- (히 11: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절관주** 막 8:38
- (히 11: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 (히 11:18)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 (히 11:19)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 (히 11:20)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히 11: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절관주** 창 48:14

(히 11:22)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본문이 속해 있는 히브리서 11 장은 믿음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장래에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본장 1-3 절에서 정의한 믿음의 본질 중 하나님의 약속이 장래에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는 미래 지향적인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을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인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본보기로 내세웁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히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내세울 때는 창세기 15 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창 15:1)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5: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 15: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창 15:4)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창 15: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 15: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 대신에 창세기 12 장을 인용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창 12: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고향을 떠난 사건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자가 창 15 장 대신에 12 장을 인용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한 것을 통해 기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는 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씌여진 책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기자도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실천적인 믿음' 다시말해 '순종'하는 믿음을 언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2 장 사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조상 대대로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타국에서 나그네로 유리하는 불편하고 안정되지 못하는 생활을 마다하지 않은 사건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적인 믿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과 비교됩니다.

출애굽한 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천상적인 유업을 받은 아브라함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기자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불순종을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서는 안 될 경고의 본보기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크리스찬들이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창세기에서는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가 가나안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 12: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히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면 창세기를 쓴 모세나 히브리서를 쓴 기자 둘 중 하나가 실수를 한 것입니까?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유업이 궁극적으로 지상적인 한 장소인 가나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천상의 유업인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본 것입니다.

(히 11: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은 그들이 정착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 줍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받은 약속을 성취해 내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히 11: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것이 지상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성, 새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영적 통찰력과 종말론적인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 안식의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안식의 천상의 안식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장 3 절에서 언급한 믿음은 보이는 것들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히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안목을 줍니다.

(히 11: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을 가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특히 사라의 경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장 1 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앎이라'에서 '미쁘신'은 '신실하신, 믿을 만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신실하여 믿을만한 분으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잉태라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녀의 확신으로 인한 긍정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믿음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심리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기자는 13-16 절 아브라함의 종말론적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보충 설명을 합니다.

(히 11: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도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 11: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히 11:15)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히 11: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롯해서 함께 유업을 받을 후사로 언급된 이삭과 야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앞 절인 11, 12 절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고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기자는 여기서 '약속'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인 종말론적인 성취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가나안 안식이나 아들 이삭에 관한 것으로 보지 않고 종말론적인 천상의 안식과 그 안식에 들어갈 믿음의 후손에 관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4-16 절에 언급하고 있는 '본향, 더 나은 본향'도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 족장들은 천상의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불편하고도 고달픈 삶을 기꺼이 감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상적인 유업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본문은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히 11: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 11:18)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히 11:19)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 11:20)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히 11: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 11:22)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 사건은 믿음에 관한 설명의 절정을 이룹니다.

기자는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었던 대로 이삭을 죽은가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사건이 종말론적인 부활을 비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말론적인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들의 대에 성취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이 후대에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이 숨을 거두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거론하며 출애굽할 때 자신의 뼈도 가지고 갈 것을 명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굳게 믿었는지를 잘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그럴지라도 우리가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은 대를 넘어 성취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믿음의 긴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의 세상 일을 보고 희비희락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의 성취는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만이 거머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